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총기 48년  
2019년 01월 3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31호

## · 새해불공회향 ·



1월 13일 불교총지중 전국 사원에서 새해불공을 회향하였다. (사진은 정각사 회향 모습)

## 기해년 새해 대 정진 불공 전국 회향

종령 법공 대종사, “덜 먹고, 덜 자고, 덜 보고, 덜 말하고, 덜 다니기” 5달계 강조

불교총지중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전국 사원에서 총기 48년 1월 7일 ~ 1월 13일(7일간) “기해년 새해 대 정진 불공”을 원만히 회향하며 철야정진을 하였다. 올해는 참회와 서원을 강조했다.

새해불공은 한해의 산림불공이다. 한해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시력으로 모든 교도들이 종단의 발전과 국가의 안녕, 개인의 서원을 이루고자 용맹 정진하는 불사다.

불교총지중의 수행 정진법인 새해불공은 종조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과 함께 시행한 정통 수행으로 해마다 새해 첫 주에 시행된다.

불교총지중 종령 법공 대종사는 총지중 본산 총지사에서 새해 정진 불공 법어를 통해 새해불공과 매월 월초불공 기

간에도 5달계를 실천하게 되면 그 공덕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덜 먹고, 덜 자고, 덜 보고, 덜 말하고, 덜 다니기”를 강조하였다. 이어 고성 염송 정진 공덕으로 “능히 줄음을 밀어내며 천마가 두려워 놀라고 진언염송 소리가 시방에 두루치게 됩니다. 또한 삼악도의 고통이 소멸되며 염송하는 마음이 흠어지지 않고, 용맹정진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삼매가 눈앞에 나타나 즉신성불의 극락정토가 펼쳐지게 됩니다.”며 염송정진공덕과 마지막으로 “정승을 마친 뒤에 경전 한편씩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며 “불교총전을 앞에 놓고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무작위로 경전을 펼쳐 나온 쪽을 읽으며 그 날의 법문으로 삼아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다.” 염송 정진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그 공덕을 살하시며 실천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는 “일주일 동안 눈이 오는 날도 있었고 최강한파도 왔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새벽부터 오셔서 늦게까지 열심히 염송하였습니다. 그 염송의 힘이 기해년 한 해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염송하던 그 힘으로, 그 정진력으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며 성취발원을 하면서 힘찬 기해년을 시작했다.

생활불교 밀교 종단 불교 총지중은 새해 대 정진 불공 기간 동안 새벽과 오전, 오후, 저녁, 하루 네 차례 전 교도들이 참여하는 사분정진으로 수행한다.

##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정사 연임

“새로운 임기 동안 종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총기 48년 1월 16일 불교총지중 중앙 총의회(의장 수현정사는) 제144차 총의회를 개최하여 현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제19대 통리원장으로 인준 가결하였다.

불교총지중은 통리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은 종령이 통리원장 후보를 지명하면, 중앙총의회가 인준을 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령님께서 저를 지명해 주셨고, 그런 저를 인준해 준 총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임기 동안 종단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며 “종단 50주년 사업과 창종 100년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제제가 불교대회의 성공 개최 등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고 통리원장으로 종단 재도약의 그림을 그렸다. 이후 집행부 구성과 사원 인사발령 이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1996년 통리원 근무를 시작으로 총지사에서 수행하였으며, 운천사, 관성사 주교 근무와 통리원 재단 사무국장, 원의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사회복지재단이사 등을 역임하여 종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이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인품이 밝고 쾌활하여 불교계 여러 종단 원장스님들과의 유대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업적으로 종조원정 기념비 건립과 전국합동 호국안민 기원 대법회 봉행, 직원 숙소인 만트라빌 재건축과 총지빌딩 매입으로 본산 부지를 안정화시키고, 부산 정각사 증축불사를 마무리하면서 지역민 포교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스승들의 집중 수행과 심화교육을 실시해 한국밀교의 전통과 맥을 잇는 성과를 거뒀다. 불교총지중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종단으로 승격시켜 종단의 대외 위상을 높였다.

### 제19대 통리원장 인선 정사 수행 이력

- 1996.6. 통리원 근무
- 1998.5. 통리원 사무 총무
- 1999.1. 전법관정 수계.
- 2000.1. 총지사 근무
- 2004.2. 운천사 주교
- 2010.1. 관성사 주교 및 총무부장 임명
- 2011.6. 중앙교육위원 위촉
- 2016.1. 제18대 통리원장 임명
- 2017.5.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임명
- 2019.1. 제19대 통리원장 인준



### 지면안내

3면 신년하례법회, 종조탄신일 법회, 한마음 캠프 / 6면 벽룡사 사원탐방 / 11면 통신원 소식

종/조/법/어

마음을 항상 정직하게 가지고 실천하면 악업이 속히 멸한다



## 상반기 49일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업장소멸과 즉신성불을 이루시고, 가정의 재난 소멸과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총기 48년 2월 19일 ~ 4월 8일 매일 오전 10시

장소 불교총지중 전국 사원 서원당

##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영부인 최초 참석

### 1월 18일, “부처님 가르침 따르고 실천할 것” 발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는 1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63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인선 정사와 서울경인교구 승직자, 각 종단 대표자를 비롯해 각종 신행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하례법회는 영부인 최초

로 김정숙 여사가 한복을 차려입고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인연의 조건 속에서 변화한다고 했다”며 “오늘의 삶은 어제의 원력을 통한 행동의 결과임을 명심해 정법과 정의는 위대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의 인연과 자신의 본분을 소중이하여 부단히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 세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외된 약자를 지키는 친구가 되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며 “나아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굳건한 평화체제를 이루는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역사의 구비마다 대립과 불화를 떨치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던 불자들의 용맹정진을 기억한다.”며 “원융화합의 정신으로 공존번영의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불교계가 원력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참석대중은 “일체중생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자성을 더욱 청정하게 해 정법을 따르고 실천할 것”이라고 발원하며 소외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전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함께 우리경제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했다.

## 부처님오신날 평양서 봉축점등식 추진예정

###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서 타종



조계종 총무원 제36대 집행부가 부처님오신날 평양 시내 봉축점등식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대북정책과 강화된 승려복지로 미래불교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다.”고 밝혔다.

“남북 불교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는 원행 스님이 발표한 2019년 새해 주요 중무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남북교류 활성화가 눈길을 끌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축원위원회 등이 2월경 금강산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과 조계종이 계획 중인 교류협력 사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류사업으로는 부처님오신날 평양시내 사찰에서 봉축 점등식을 비롯해 남북 전통등 전시회, 조별련 초청

남북이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및 봉축법요식, 금강산 신계사 운영 정상화와 템플스테이 기반 조성, 북한 사찰 산림 조성 공동 협력 등이 제시됐다.

조계종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3월 1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범종단이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법회, 불교계 3·1운동과 항일 독립운동 재조명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3월 1일 조계종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일제히 타종식을 실시한다.

이밖에 종단의 핵심적인 의제를 논의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종단 지도자 포럼’을 정례화한다. 또 10·27 법난기념관의 변경 부지를 확정하고, 위례신도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와 세종시 전통문화체험관의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등 종단 불사에 속도를 낸다.

## 문정왕후가 발원한 불화 등이 보물로 지정

### 조선시대 불교 조각과 고려·조선 경전 등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6세기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등 조선 시대 불교 조각과 고려·조선 시대 불교경전 등 4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하였다.

보물 제2011호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木浦 達聖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은 1565년(명종 20년)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으로, 지장삼존(地藏三尊), 시왕(十王), 판관(判官)과 사자(使者) 등 19구로 이루어진 대

단위 불상군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불상조각 중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 모두 남아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서 역사적·조각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다. 특히, 지장보살상의 경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半跏) 자세를 취하고 있어 ‘강진 무위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312호)’의 지장보살상,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상(보물 제1666호)’과 더불어 조선 전기의 보기 드문 형식으로 희소성과 조형적 가치가 뛰어나다.

보물 제2012호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楡巖寺’銘 藥師如來三尊圖)」는 1565년(명종 20년) 중종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년)가 아들인 명종(明宗)의 만수무강과 후손 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한 400점의 불화 중 하나로, 경기도 양주 회암사(楡巖寺)의 중창에 맞춰 조성된 것이다.

회암사의 대대적인 불화 조성을 추진한 문정왕후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왕실 여성이자 많은 불사(佛事)를 추진한 불교 후원자였다. 회암사는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은 승려 보우의 활동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번창하다 이후 쇠퇴하여 19세기 초 폐사지가 되었고, 지금은 ‘회암사지(楡巖寺址)’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불화는 가운데 본존인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 월광보살(月光菩薩), 오른쪽에 일광보살(日光菩薩)을 배치한 간략한 구도로, 금니(金目)로 그려 매우 화려하고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준다. 주존불과 보살 간에 엄격한 위계를 두어 고려불화의 전통을 따랐고 가름한 신체와 작은 이목구비 등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 문화유산 포털서 3D프린팅 데이터 개방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무료로 개방

불교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3차원 입체(3D) 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상황을 대비해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작한 문화유산 3차원 입체(이하 3D) 프린팅 데이터를 ‘국가문화유산 포털(heritage.go.kr)’을 통해 1월 10일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국가문화유산 포털에서 이번에 공개하는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수요에 맞게 가공·변환한 자료이다. 문화유산 3D 프린팅 자료 등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들은 직접 제작하려면 고가의 3D 스캔 장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제작·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료들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들은 개성남계원지철충석탑(국보 제100호), 장덕궁(사적 제122호), 임진서기석(보물 제1411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등 모두 186건 1,196점으로,△3D 프린팅△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하다.

또한, 국가문화유산 포털 검색을 통해 ‘한국의 세계유산’, ‘교과서 속 문화재’ 등 주제·문화재별 검색과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들 자료는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방문하면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100MB 이상)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pcsish@korea.kr)으로 제출하면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다.

## 3·1운동 100주년 ‘불교 항일운동’ 재조명 본격화

### 심포지엄 준비 등 불교계 다양한 움직임

조계종 총무원 제36대 집행부가 부처님오신날 평양 시내 봉축점등식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대북정책과 강화된 승려복지로 미래불교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다.”고 밝혔다.

“남북 불교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는 원행 스님이 발표한 2019년 새해 주요 중무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남북교류 활성화가 눈길을 끌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축원위원회 등이 2월경 금강산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과 조계종이 계획 중인 교류협력 사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류사업으로는 부처님오신날 평양시내 사찰에서 봉축 점등식을 비롯해 남북 전통등 전시회, 조별련 초청



남북이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및 봉축법요식, 금강산 신계사 운영 정상화와 템플스테이 기반 조성, 북한 사찰 산림 조성 공동 협력 등이 제시됐다.

조계종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3월 1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범종단이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법회, 불교계 3·1운동과 항일 독립운동 재조명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3월 1일 조계종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일제히 타종식을 실시한다.

이밖에 종단의 핵심적인 의제를 논의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종단 지도자 포럼’을 정례화한다. 또 10·27 법난기념관의 변경 부지를 확정하고, 위례신도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와 세종시 전통문화체험관의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등 종단 불사에 속도를 낸다.

## 해인사, 천도재를 현대음악으로 선보인다

### ‘(가제)왕생가’ 앨범·악보 제작...7월 중 출시 예정



범보종할 합천 해인사가 불교의식인 천도재를 현대음악과 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월간 해인 편집장 도정스님은 해인사는 지난해 연말 중무회의를 통해 천도제의 현대음악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

는 7월 즈음 악보와 음반 CD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정 스님은 “천도제가 죽은 이들에게 법을 설하는 엄숙하고 딱딱한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주와 재주와 영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가 되도록 만

들 것”이라며 “새로운 세계로 가는 잔치가 희망이 재의 역할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된 곡은 총 10곡으로 기존의 찬불가 형식을 탈피한 합창과 독창, 중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한 편의 연극처럼, 뮤지컬처럼, 대서사시처럼 꾸며, 불교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불교예술의 장을 확장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오는 7월에는 ‘(가제)왕생가’라는 제목으로 앨범과 악보를 출시할 계획이다.

도정스님은 이번 작업이 천도제가 이승을 떠난 이들에게 법을 설하는 엄숙하고 딱딱한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범주와 재주, 영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종단협, 10번째 불교서적 영역출판

### < Empty and Marvellous >, 무비 스님 책 편집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불교서적을 번역해온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10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 책은 한국불교 대강백으로 평가받는 무비 스님이 쓴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을

편집한 것으로 한국불교만의 명구를 적은 책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무비 스님이 쓴 글에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명구와 국내 조사 스님들의 명언, 선시 등에서 42개를 다시 추려 하나로 묶었다. 무비 스님 단행본

내 명구의 원문이 중국 등 넓은 지역을 포괄했다면, 이 책은 한국이라는 무대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역뿐만 아니라 한글 단행본에 실린 원문도 함께 담아내 영어를 잘 모르는 이들도 쉽게 명구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불교총지중, 기해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종령 법공 대종사, “기해년을 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기에 실천하자.”



불교총지중은 1월 16일 강남구 역삼동 총지사 서원당에서 기해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승직자와 교도들이 참석하여 본존불 예배와 종령예하 하례

필연적인 일이 됩니다. 성과 없는 허송 세월을 두고 잃어버린 세월이라 합니다. 과거를 뒤돌아보고 새로 시작하는 신년 하례 이 자리가, 희망에 찬 설계를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발심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기해년을 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기에 실천합니다.”며 새해 희망 찬 도약을 발심해 줄 것을 설하였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이루지 못한 큰 서원은 젊음과 함께 사라지고 또한 별것 아닌 작은 소원들은 나도 모르게 웃으며 보낸다.(중략)’는 관성사 교도의 새해불공 서원을 인용하며 “이 보살님의 마음에 이어 승단 스승 상호간 하례, 교도 하례가 이어졌다.

에 이어 승단 스승 상호간 하례, 교도 하례가 이어졌다. 종령 법공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만 있다면 성공은

### 진일심 전수 기로 진원식 봉행

“영광도 없는 스승의 자리에서 중생교화에 힘쓰신 노고에 감사름..”



불교총지중은 1월 16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18년 동안 교화 스승으로 중생교화에 헌신해 오신 진일심 전수(해정사 주교)의 기로 진원식을 봉행했다. 전국 승단 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기로 진원식은 총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

로 봉행 되었다. 다. 영광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런 교화 스승의 자리를 18년 동안 중생교화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진 일심 전수님의 범용창을 서원합니다.”며 그간 노고를 치하 하였다.

기로 진일심 전수는 “종령님, 통리원장님, 승단 스승님들 감사합니다. 승단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봅니다. 교화 스승 첫 발령때 힘들어하는 저에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 해주신데 힘을 얻어 교화 일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며 승단 도반들과 교도들에게 그간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로 봉행 되었다. 종령 법공 대종사는 “스승이 된다는 것은 인물이나 지식,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중한 인연이 없으면 스승이 날 수 없습니다. 스승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자리가 아닙니

### 불교총지중 1월 인사발령

발령사원	발령스승	발령사원	발령스승	발령사원	발령스승
정각사	도신 정사	정각사	명진 전수	선립사	주교 도관 정사
정각사	주교 도현 정사	정각사	자인행 전수	정각사	남혜 정사
덕화사	주교 법상인 전수	법황사	주교 범우 정사	법황사	인지심 전수
삼밀사	주교 묘흥 전수	백월사	주교 해광 정사	밀행사	주교 행원심 전수
실보사	주교 서령 정사	실보사	해원정 전수	제석사	주교 시정 정사
제석사	원만원 전수	실지사	주교 덕광 정사	실지사	보현 전수

바로 잡습니다. 제230호 3면 총지사 전인 신정회장 박정희 보살로 바로 잡습니다.

### 종조 원정 대성사 탄신 112주년 탄신대재 봉행

충기 48년 1월 29일 오후 2시, 전국 사원에서 봉행



불교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 탄신 112주년을 맞아 전국 사원에서 탄신대재가 봉행되었다. 서울·경인교구에서는 1월 29일 14시에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 합동으로 탄신대재를 봉행하였다.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 서울·경인교구장 범경 정사, 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보살, 각 사원 신정회장 및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이 땅에 정통밀교를 다시 꽃피우게 하신 총지중의 종조 원정 대성사

남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에서 탄생하셨습니다.”며 본 법회 사회를 본 법일 정사의 대성사의 행장은 1월 29일 14시에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 합동으로 탄신대재를 봉행하였다.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 서울·경인교구장 범경 정사, 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보살, 각 사원 신정회장 및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오늘은 이 땅에 정통밀교, 한국 밀교를 뿌리내리게 하신 종조님의 탄신을 기리는 뜻깊은 법회를 올리고 있습니다. 창종주이신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기념 법회는 이 땅에 부처님의 선법이 펼쳐지는 거룩한 법회이기도 하옵니다.”며 종령 법공 대성사의 고유문을 올렸다.

이여 법어를 통해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우리 총지중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께서 탄신하신지 1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탄신일을 맞이하여 총지중의 모든 종도들은 환희와 기쁨 마음으로 봉축드리는 바입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봉행사에서 “창종주이신 원정 대성사님께서는 밀엄국토 건설과 밀교중흥에 대한 대원으로 정연한 교상과 사상을 갖춘 정통밀교종단 불교총지중을 창종하여 대승불교의 연장선상에 수승한 최상승 밀교가 있음을 만천하에 천명하셨습니다.”며 종조님의 대원을 되새겼다.

이여 교도를 대표하여 서울·경인 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보살이 종조님 전에 발원문을 낭독하였다. 탄신대재는 서울·경인 마니 합창단의 축기를 끝으로 모두 마쳤다.

### 불교총지중 한마음 겨울캠프

1월 22일~24일, 강원도 홍천에서 청소년 바른인성형성 프로그램 개최



청소년 바른 인성형성 프로그램인 불교총지중 한마음 겨울캠프가 2019년 1월 22일 ~ 2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후원으로 불교총지중이 주최하는 캠프는 1월 22일 14시 입학식으로 인성프로그램과 청소년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되었다. 23일 겨울스포츠 체험을 통한 기분전환과 마음단련 활동을 하였고, 24일은 나를 찾는 여행 참석자의 활동 보고 및 시상식 프로그램으로 마무리하였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요즘 자칫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이럴 때 더 활발히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이 단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마음

캠프를 통해 기분 전환 하면서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캠프를 개최하여,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진행자들에게 추가로 하였다.

청소년 미래 프로그램을 강의한 총무부장 우인 정사(개천사 주교)는 이번 캠프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분야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춘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는 연기적 존재로 왕따, 폭력,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나와 환경의 관계, 나와 주변인들과의 연기적 관계를 통해 나와 내가 따로 있지 않은 하나의 세계에 존재하는 공동 운명체임을 강연했다.

본 캠프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이 직접 계획한 여행 프로그램 ‘나를 찾는 여행’의 후기 발표 우수팀들에게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었다. 한마음상에는 ‘축구짱’팀, 정진상에는 ‘서호’팀, 우정상에는 ‘동해의 외인구단’팀, ‘부산의 재발견’팀, ‘다이나믹’팀이 수상하였다.

통신원=김평석

## 정각사 문화강좌 (수시모집)

### 봄학기 개강

#### ▶합창단◀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단장 : 이상록  
지휘자 : 박윤규 / 반주자 : 김옥희

#### ▶한국화(천아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 안정은  
회비 : 5만원

#### ▶스포츠댄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사 : 소달복  
회비 : 무료

#### ▶다도반◀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강사 : 김정애  
회비 : 무료

주소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8-8) / 전화 : 051-552-7901

## 수인사 문화강좌

### 봄학기 개강

#### ▶약선식 사찰요리◀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정오 12시  
강사 : 박금화

기간 : 3/25~5/27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서동로67 (덕산동 120-1) / 전화 : 054-247-7613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 마가 도로 공덕된다

부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이요  
경과법은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심이라  
한가지로 배우는자 형제자매 되는고로  
이와같은 인연에서 서로구제 할지니라

같은 사원에 다니는 우리는 서로서로 매일 같이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의 인연은 보통의 인연이 아니며 아주 깊고 깊은 인연입니다. 그러므로 종조님은 교도들과의 인간관계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중시하셨습니다. 흔히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종교를 함께 믿고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두껍고 깊은 인연인 것입니다.

### 믿는형제 가운데서 큰일있을 그때마다 십분정진 자주하여 도와주게 할지니라

가까운 보살님 중 한 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보살님을 위해서 정진을 합니다. 십분 정진의 십분이란 우리가 대략 7회 정도 불공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길게는 해주지 못하더라도 7회 정도는 어려움에 처한 보살님을 위해 불공을 하는 일은, 그 보살님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공덕을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불공이란 정말 거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선을짓고 악지움에 빠짐없이 과보있어 씨름심어 많은열매 얻는것과 같으니라

종조님은 공덕이 쌓이는 이치를 농사에 비유하였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뿌리러 내린 다음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모습을 그려 봅시다. 씨앗은 비록 단 하나이지만, 맺힌 열매의 양은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공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적게 심어도 시간이 지난 다음 수백 또는 수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잠시 잠깐 해주는 공덕이라도 한없이 크고 깊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보살님을 위해 잠시나마 십분 정진을 하는 것 역시 대단한 공덕을 짓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저불공 하는데는 세가지의 구별있어  
그공덕도 이에따라 각각다른 것이니라  
불에공양 하는자는 큰복덕을 얻게되며  
속히보리 성취하여 일체모든 중생들이  
안락함을 얻게되며 법에공양 하는자는  
지혜가공 증장하여 법의자재 증득하고  
모든법의 그실성을 능히깨쳐 알게되며  
승에공양 하는자는 한량없는 복덕성과

일체자랑 증장하고 불도성취 되느니라.  
『대방광불보살사경계경』

부처님께 공양하는 자는 큰 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시간에 하나의 법을 듣고 다 함께 해탈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법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사람마다 또는 그 사람이 처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제각각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나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며 골치 아파합니다. 법에 공양을 하는 자는 지혜가 증장한다고 합니다. 법의 자재를 증득한다는 표현의 자재는 자유자재라고 말할 때의 자유인데,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지혜가 밝다면, 금방 알아듣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공양하는 방법으로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읽게 하는 것은, 넓게 본다면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공양을 하다 보면 법의 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의 성품을 능히 깨쳐 알게 됩니다. 자랑의 자는 재물이고 랑은 양식을 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든 양식이든 물질적인 것들이 풍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불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루중에 행복함은 새벽불공 함에 있고  
칠일중에 행복함은 자성일에 빠짐없이  
불공정진 함에있고 한달중에 행복함은  
월초불공 함에있고 일평생에 행복함은  
평생으로 변함없는 그중지에 있느니라  
(종조법설집)

종조님께서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공덕을 닦을 수 있는 경로를 아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마련해주었습니다. 아침 정승부터 자성일 지키기, 월초 불공, 49일 불공까지 여러 가지 불공법을 통해 현실생활과 함께 우리는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 중에서도 월초라는 명목하에 일주일 동안 사원에 나와 불공을 하도록 만든것은 종조님의 지혜이자 슬기입니다. 주변의 그 어떤 종교를 둘러봐도 우리처럼 낱파와 시기를 세심하게 정해서 수행을 독려하는 불교 종파는 없습니다. 일평생의 행복함은 평생으로 변함없는 그 중지에 있다고 합니다. 자성일을 지키지 않으면 일주일이 불행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중지라는 것은 종교생활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치 않고, 잘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늘 꾸준한 자세로 실천을 하며 닦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평생이 행복해진다 것을 강조하십니다.

정진중에 일어나는 마장은곧 법문이라  
우리말교 삼륜신은 행자에게 법을주어  
자기허물 결집등을 체험으로 알게하고  
육행실천 하게함어 법신불의 서원이라  
아직증득 못한이는 마장이라 하지마는  
모든지혜 밝은이는 법문이라 하느니라

무지한 중생들이 부처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고통부터 안락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험에는 법문이 같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중생은 중생이기에, 법문을 법문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괴로운 고통이나 마장으로만 여기기 일쑤입니다. 삼륜신은 중생의 곁에서 법문의 체험을 함께 하며 중생에게 이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난행고행 단련하여 몸과마음 금강같이  
인격완성 하게하는 제일좋은 방법이라  
애착심이 화하여서 평등심이 되게하고  
탐욕심이 화하여서 회사심이 되게하며  
진애심이 화하여서 화합심이 되게하고  
우치심이 화하여서 일체지혜 밝게하며  
사견집착 끊어져서 일체무에 되게하니  
마가되지 아니하고 도로공덕 되느니라  
칠일정진 사십구일 백일정진 하는데는  
당체설법 그것보다 더좋은것 없느니라

난행이란 보통사람이 하기에 어려운 것을 의미하며, 고행이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난행과 고행을 견디면 몸과 마음이 금강처럼 견고해지고 인격이 완성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마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호사다마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필연적으로 마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역시도 깨달음 직전에 온갖 마를 겪었으며 보통의 중생들도 좋은 일을 하나 얻는 데에도 가지각색의 마가 따라옵니다. 수행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조님이 마련해주신 시시때때로의 다양한 불공법을 통해, 마음이 바르지 못한 부정함 부분이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마음의 무게 혹은 집착에 대해 다 끊어냄으로써 일체 무애가 되게 하고, 고통과 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이겨낸다면 공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공 중에 보이는 법문이란 당체설법으로 당체의 체는 시간적 개념을 일컫습니다. 그때그때의 불공에서 보이는 법문이 바로 법신불의 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우칠 수 있으며 나아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칼럼 지혜의 눈

# 끼리끼리 문화 속 홀로서기

“기존 관행은 업생(業生), 관행을 끝내려는 것은 원생(願生)”  
“원력 있는 사람에게는 외로움도 왕따도 없다.”

새해가 되면 뭔가 달랐으면 하는 기대를 하지만 막상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다. 갖가지 어려움과 병고 등으로 곳곳에 신음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뉴스들로 눈과 귀가 마비될 정도이다. 특히 내편 내편 갈라서 부딪치는 갈등의 파열음들은 가뜰이나 힘든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혼자 살면 그런 문제는 없으려나 싶지만 세상은 온갖 관계들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은 혈연, 지연, 학연 등 갖가지 인연들로 중첩돼 있다. 다양한 관계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강하게 끌리는 인연에 빨려 들어간다. 천태만상의 인연은 우리를 삶에 있어 자연스러운 일인 하지만 그 속에서 고통을 양산하는 점이 문제이다.

끼리끼리 문화와 그 속에서 파생하는 차별과 배타, 왕따는 정도만 다를 뿐 보통 우리들의 일상 속에 배어 있는 것 같다. 지역이 같거나 출신 학교가 같거나 하면 괜히 더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던가. 또 선택한 이념이나 종교 따위가 같다면 어떤가. 차이를 존중이 아닌 차별이나 배타, 왕따로 이어가는 선하지 않은 측면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끼리끼리 문화에는 나름의 규율이 있어 그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거나 쫓아내기도 한다. 이는 같은 그룹 내에서도 때때로 차별과 배타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한 정당 당론이 결정되었을 때 소속 국회의원이 정치 생명을 걸고 당론을 지키면서까지 크로스 보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심지어 캠프 그룹 안에서 의리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처럼 그룹 간에 뿐 아니라 그룹 내 소그룹 간에, 친척이나 친지 간에도, 가장 작게는 개인들 간에도 친소가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차별과 배타가 있을 수 있다. 차별과 배타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차원을 달리하며 다양한 양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최종적으로 믿을 것은 자기만 남는다.

우리 내면의 끼리끼리 문화는 결국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폐(自閉)의 한 측면이라 볼 수 있

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곳에 어울려 하고 불리한 곳으로부터는 떠나려 하는데서 자기의 범위를 좁게 때로는 넓게 잡으며 이합집산에 참여한다. 이 모두가 자기를 위한답시고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행태 속에서 자기 또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인 것 같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곳에도 쉬이 마음을 줄 곳 없는 외로운 섬처럼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중간지대의 회색인간처럼 되어 가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은 아닐까.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용기도 지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싸움판에 끼어들기 싫어서,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찾지 못한 데서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서 혹은 무기력하게 기존의 관행을 좇는 것이 업생(業生)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업생의 관행을 약화시키고 끝내려는 것이 바로 원생(願生) 아니겠는가. 자기를 개혁하는 수행은 바로 이러한 원생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도반을 찾지 못하면 외로운 홀로서기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 말씀은 처음부터 혼자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뒤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힘써라 다니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다.

업생의 흐름을 벗어나 영원한 행복, 열반을 지향하는 길은 자기 확신에서 비롯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바세계인 것 같지만 개인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혼자라고 무조건 외로운 것이 아니고 왕따란 지적도 가담치 않다.

김봉래(불교방송 보도국 기자)



初發心自警言文

초발심자경문

불교총지중 법장원

##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 쉬운 번역!  
✓ 간결한 표현!  
✓ 읽기 쉬운 원문!

하령 번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2

## 육자대명다라니의 공덕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육자대명다라니가 가지는 위상에 대해서, 마치 깨끗한 곡식을 자기 집으로 거둬들여서 그릇에 가득 차도록 채워 넣고 햇볕에 쬐어 말려서 찢고 부채질하여 그 등거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찢은 쌀만을 거두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유가는 저 등거와 같고, 일체의 유가 가운데 이 육자대명왕은 깨끗하게 찢은 정미와 같습니다. 라고 설하였다. 육자대명다라니는 마치 곡식 중에서 백미가 으뜸이듯이 모든 진언 중에 최고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일구지 수만큼의 여래가 한 곳에서 천상의 일곱을 지내는 동안에, 의복과 음식 앗고 누울 때 쪼는 기구, 탕약과 온갖 쓰이는 물건들을, 여러 가지로 저 모든 여래에게 공양한다 하더라도, 또한 육자대명다라

니의 공덕 수량에는 미칠 수가 없느니라. 라고 육자대명다라니가 지니는 공덕이 다른 어떤 공덕보다도 한량이 없음을 설하고 있으며,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제계장보살이 육자대명다라니를 얻기를 원하면서 육자대명다라니의 공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탄하고 있다.

만일 육자대명다라니를 얻는 자는 불가사의하고 무량한 선정이 서로 응하여 곧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은 것과 같고, 해탈문에 들어가서 열반지를 보게 되며, 탐심과 진심이 영원히 없어져서 법장이 원만하고, 오취의 윤회를 깨고 여러 지옥을 청정하게 하고, 번뇌를 끊어 없애고, 방생을 구하고, 범미를 원만히 얻어, 일체지지로 연설이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이 진언왕은 일체의 본모라, 그 이름을 생각만 하여도 죄의 더러움이 없어지고

속히 깨달음을 증득한다. 라고 하여 육자대명다라니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처럼 모든 부처를 출생시키는 진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육자대명다라니는 관자재보살만이 아닌 모든 불보살의 대표로서 불리는 것이며 관자재보살을 통해서 제불보살의 본마음이 육자대명다라니라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며 이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을 통해서 불보살의 본심과 지송자의 본심이 가지가 되어 해탈을 얻고 업장이 소멸되고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고 설하고 있다.

또한 그대는 마땅히 육자대명총지문을 증득하여 라며, 육자대명다라니를 총지문이라고 하여 이 육자대명다라니에는 무수한 의미와 무량한 공덕이 함장되어 있음을 설하고 있다.



법상정사  
연명의료 12

## 대승경전에서 바라본 연명의료결정

중생들의 깨달음 보다 구제를 중시하는 대승불교, 먼저 대승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대승이라는 것은 “마하야나(Mahā-yāna)”이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큰 수레’라는 뜻이 된다. 이는 광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중생의 구제를 우선으로 해서 깨달음을 행하는 자리행(自利行), 중생을 구제하는 이타행(利他行)을 추구하는 부파이다

대승경전에서 바라보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연명의료중단과 병견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초기 경전에서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찬반의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반하여 대승경전에서는 불살생계와 관련하여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불살생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근거만을 제시할 뿐이다.

십중급계 중 제1계에 집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살생하지 말라(不殺生)이다. 불살생은 불교윤리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의 자비행을 말하는 것이다. 불살생은 생명에 대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실제로 행함을 통하여 다른 중생의 삶을 도와주고 살려내는 데 근본을 둔다.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 의미는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명제가 내재되어 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내적 명제로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법신의 몸으로 세상에 나타남으로 법계에 머물지 아니할 수 없다. 내적으로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존재인 것이다. 중생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이 불성이고 성불 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생의 육도윤회이다. 중생은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도윤회를 하는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치명적인 자해행위 하는 것과 가까운 인연 있는 중생을 해치는 살생은 무간지옥에 빠지게 되므로 육도윤회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들에게 위해를 가하여도 안 되며, 자기

또한 치명적인 자해행위를 하여도 아니 된다.

대승불교의 보살은 자리아타적인 자비 즉,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 불도를 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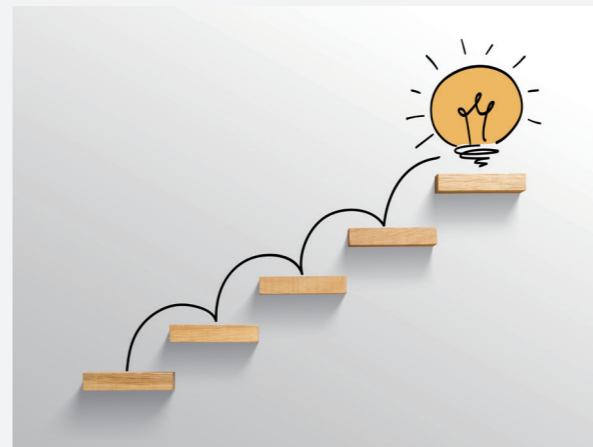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사람에게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 곤충, 하찮은 미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살생하는 업을 지어서는 아니 되며, 동시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자리아타적 자비인 것이다.

필자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자비의 근원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면서 삶을 영위하는 중생들에게 자비 정신을 실천으로 고통 경감과 제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간병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정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각사 주교 도현 정사

## 성격 II



### 인간의 성격은 반복된 행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변의 태도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나름 열심히 수행 하였으나 고질적인 자신의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도 잦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 또한 자신의 급한 성격 때문에 수행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성격을 탓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스승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급한 성격 탓에 자신의 수행의 진전이 더디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그러자 스승은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급한 성격이란 놈을 나에게 내어 주게 그러면 내가 그놈을 멀리 쫓아버려주겠네” 순간 젊은 수행자는 크게 깨달았다.

“아! 나를 힘들게 했던 급한 성격이 처음부터 내게 있었던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었구나.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된 나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가변의 태도일 뿐.”

불교에서는 어떠한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성격도 그 실체는 없다는 입장이다.

### 성격형성의 요인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격 형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말한다. 이 두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적 요인 플러스 환경적 요인’ 이라기보다 ‘유전적 요인 곱하기 환경적 요인’인 것이다.

또한 사회적 역할도 성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모두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반드시 일정한 일(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두면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며 또한 어느 누구의 딸이며 누이이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이 자신에게 주어진다.

이와 같이 사회 속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성격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역할성격’이라고 한다.

사장은 사장의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선생은 선생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행동한다. 따라서 자기 행동의 모습은 사회적 역할과 그 역할에 맞는 행위 장면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셈이다.

역할 성격은 장면과 경우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협의의 성격만큼 일정하지는 않으나 인간 행동상의 적지 않은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정 할 수는 없다.

### 출생순위에 따른 성격 형성

심리학에서 처음으로 열등감(劣等感)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아들러(Alfred Adler 1870 - 1937)는 인간은 출생 순위에 따라 성격과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이는 개인의 주관적 지각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났을 때 혼자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면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퇴행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쫓겨난 황제, 폐위된 왕으로도 비유된다.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규칙과 규범을 중요시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되거나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며 독립심이 강하다.

둘째로 태어난 아이는 대체로 경쟁심이 강하고 대단한 야망을 가진 성격이 된다. 형을 이겨야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 경주하듯 형을 이기려고 자신을 훈련시킨다. 나머지 형제와 못쳐서 첫째에게 대항한다. 그래서 협동 및 타협의 기술에 능하다. 경쟁의식이 강하여 혁명가가 될 수 있다.

둘째 아이의 삶은 첫째 아이를 따라잡으려는 끊임없는 경주이기에 달리는 꿈을 자주 꾸는다고 한다.

막내로 태어난 아이는 응석받이로 자라게 되고 성인이 되어도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힘이 약하고 과잉보호를 받아 독립심이 부족하고 열등감을 경험하기 쉽다. 형, 누나를 이기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는 이점이 있고 과잉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그때 그 시절

### 삼일사 건축허가 총기 22년(1993) 2월 5일

대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치 영선동 1가 109-1  
규모 대지면적 : 1,001.9㎡  
연 면적 : 693.4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층 2동

### 법장원 개원 불사 봉행 총기 24년(1995) 2월 18일

소재 강남구 역삼동 통리원 건물 3층에 법장원을 둔다.

### 제6대 종령 특정 대종사 추대식 총기 23년(1994) 2월 17일

장소 총지종 분산 총지사 서원당  
수행이력 제2대, 제4대 종령 역임

### 제12대 통리원장이, 취임식 및 법장원장 퇴임식 총기 30년(2001) 2월 15일

취임 제12대 통리원장 : 해암 정사  
퇴임 제11대 통리원장 : 총지화 전수  
퇴임 법장원장 : 효강 정사  
장소 : 총지사 서원당

### 사원명 : 만보사(滿寶寺)

- 예전사원명 : 대전선교부
- 개설일자 : 총기 2년(1973) 1월 16일
- 사원 개명일자 : 총기 8년(1979) 4월 17일
- 예전 사원 주소 : 대전시 삼성동 276의 13호
- 현 사원 주소 : 대전시 중구 보문산공원로 530번길 30



▲ 만보사 지진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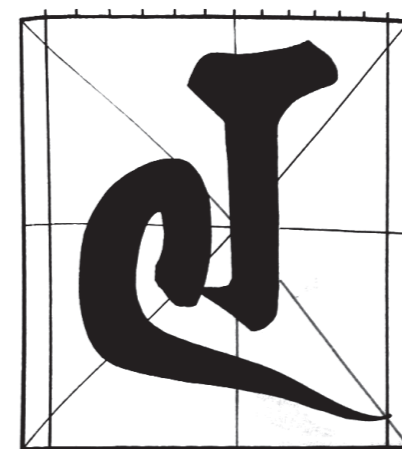


▲ 만보사 현공불사

## 범자진언

< La字 >

< 범자 쓰는 순서 >



stavam nilakantha-nama (발음 표기)  
스따와 닐라칸타 나마 (범음)  
다바 니라칸타 나막 (한자음)

★ 뜻 : 당신의 명호 청경성존



사/원/탐/방

다 함께 다같이, 모두가 함께 하는 벽룡사



▲ 사진 = ① 옛 벽룡사 ② 현 벽룡사 ③ 육법공양

## 환한 미소로 행복을 만들어 가는 벽룡사(碧龍寺)

### 벽룡사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푸른 유리 빌딩건물이 벽룡사이다. 관악산에서 흘러온 도립천 돌 징검다리를 지나면 보라매공원이 있고, 둔치를 따라 자전거를 빌려 타면 한강 여의도 공원까지도 갈 수 있다. 봄이면 벽룡사 오는 길은 벚꽃으로 장관을 이룬다. 벚나무 터널 길을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면 벽룡사 서원당에 들 수 있다.

벽룡사는 유난히 각자님들이 많다. 대부분 결혼 후 보살님을 통해 입교가 이루어진다. 남자 교도가 입교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고 꾸준히 다니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벽룡사에는 신정회와 산악회, 삼목회가 있다. 각자님들

친목회인 삼목회를 통해 교도끼리 교류와 친목을 다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삼목회장 이평원 각자는 “삼목회는 셋째 주 목요일이란 뜻입니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모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정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보니 뜻이 맞아서 그때 모이게 됐습니다. 모임의 취지는 벽룡사 교도들의 친목과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이면 주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각자님들의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보살님들도 함께하는 날이 많습니다.”라며 웃음을 띠었다. “벽룡사는 무엇보다도 가족적인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어느 곳이든, 좋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용인, 수원, 인천 등 멀리서 오시는 보살님들도 계세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다들 오시는 거겠지요. 앞으로 꾸준한 모임으로 벽룡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

고 싶습니다.”라며 자량이 끊이지 않는다. 조귀자 보살은 “처음 입교 후 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조건 불교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기초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또 염송정진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스승님의 응원과 가르침으로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에서의 크고 작은 행사나 산악회 산행, 삼목회, 육법공양... 어떤 자리든 즐겁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벽룡사 교도들의 얼굴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환한 미소는 행복의 씨앗에 물을 주듯, 절에 오는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라며 벽룡사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었다.



▲ 벽룡사 약도



▲ 사진 = ④ 산악회 ⑤ 기념사진

## 다함께 다같이 꾸려 나가는 벽룡사

### 벽룡사 산악회

벽룡사의 또 다른 소모임으로는 산악회가 있다. 2008년 오대산 노인봉 산행으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자그마치 10년이나 유지된 모임이다. 국내에서 해외등반까지, 산악회를 이끄는 회장인 이종호 각자는 짧은 인터뷰에서도 리더십을 드러내었다.

**Q.산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등산을 할 산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은 산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산 근처나 아래에서 즐길 것이 충분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잇대가 있는 분들은 산행을 힘들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가기 전에 충분히 사전조사를 합니다. 숙소나 식당을 찾아보고 미리 예약을 하고, 가까운 경우 미리 답사를 가는 일도 있습니다.

**Q.생각보다 고려사항이 많은데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보람을 느끼니까, 딱히 수고스럽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참여율이 높고, 정사님 전수님께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차량 운행은 물론이고 멀리 떠나는 날이면 전수님께서 직접 도사리를 준비하시거나 간단한 간식거리를 마련하실 때도 많습니. 그럴 때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Q.산행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숙박을 하는 경우 호텔, 리조트, 민박까지 가리지 않고 다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지역의 특산물, 유명한 음식을 위주로 식사를 하고요. 그러니 늘 재밌습니다. 또 산내에 절이 있다면 꼭 들리는 편입니다. 그것 또한 산행의 묘미니까요. 산악회는 신행생활의 활력소, 비타민입니다. 다들 그리 생각합니다.

**Q.산행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지리산 산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날은 점차 어두워지는데 뒤에 처지는 교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참으로 어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옴마니반메훈 진언을 항상 하는 것뿐이었죠. 다행히 보살님들이 힘을 내주어 큰 사고 없이 산행을 마칠 수 있었는데, 산행이 힘들어서 인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10년 동안 산악회를 유지해오신 공로로 공로패를 받으셨어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10년이나 산악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로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교도분들이 불만 불평 없이 잘 따라주었고, 또 정사님과 전수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벽룡사의 모든 교도님들,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벽룡사 신정회 회장은 올해로 4년차가 된 오미순 보살이다. 총지종 원년도부터 다닌 불심 깊은 베테랑 보살로 부회장을 맡다 투표를 통하여 회장에 당선되었다. 오미순 회장은 오직 한결같이 겸손한 태도로 인터뷰에 응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모로 모자란 저를 많은 보살님들과 스승님들께서 채워주십니다. 어떤 행사나 일

이 생기면 다들 팔부터 걷어붙이고 자신의 일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김장이며 크고 작은 행사에도 일해 내기가 참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적극협조하는 말들이 현재 벽룡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수줍은 웃음을 지었다.

벽룡사 공양시간은 다른 사원과 조금 다르다. 일단은 따로 처사보살이 없다. 때문에 특정인물이 공양시간을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모든 교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양기도 후에 식사를 시작한다. 모든 사람의 공양이 다 끝날 때까지 누구 하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다. 모두의 공양이 끝나면 공양심고 기도도 다 함께 공양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먹은 자리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탄다. 이게 바로 벽룡사의 모습이고 수행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스승이나 회장이 앞서 끌고 나가는 형태가 아닌, 다 함께 다 같이 자발적인 협동심으로 꾸려나가는 벽룡사 말이다.

취재=박설라

지상설법

삼삼평등을 알아차림하기를 한해 수행 목표로 삼자



벽통사 주교 법일 정사

총지종 불공법은 삼밀관행법입니다. 신밀, 구밀, 의밀을 삼밀이라 하고 또 삼밀은 부처님을 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생은 누구나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성을 싹틔울 수 있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지요. 그 불성을 무엇을 통해 언제 꺼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삼밀관행을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밀관행을 통한 수행으로 불성을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성을 꺼냈을 때, 나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누구나 다 부처라고 이야기하지만, 번뇌를 벗어나 진정한 부처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중생에게는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는 친구의 삼업이 있고 부처에게는 바른 자세로 정좌하여 앉는 신밀, 진언을 입으로 외는 구밀, 생각과 마음가짐을 부

처처럼 하는 의밀의 삼밀이 있습니다. 중생의 삼업을 부처의 삼밀처럼 갖추어 진다라고 믿고, 아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구현해 내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그것을 깨우친 것을 자증이라 합니다. 의밀인 부처의 마음을 세상구현하는 것이 신밀과 구밀입니다. 형태, 색, 소리 등의 많은 수단을 통해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인 의밀은 중생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중생의 친구의 삼밀로 표현됩니다. 나는 결국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삼업과 부처의 삼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삼삼평등으로 구현해 냅니다. 나의 말이 부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곧 부처의 행동이 됩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고, 나의 말이 다 맞다고 착각

하여 행동해선 안 됩니다. 아만과 아상에 빠지지 않게 늘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은 완성된 삼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과 말과 마음이 부처님과 같은지, 아닌지를 골라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인데, 그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입니다. 지혜를 밝히는 것이지요. 삼밀관행을 통해, 옴마니반메흠을 염송하며 번뇌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말이, 생각이 정말 부처다운가 부처님 법에 맞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대형병원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중, 새벽 5시 병실에서 호출이 울려 달려가 보니 환자가 대뜸 간호사에게 사과를 깎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순간 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암병동에서, 사과를 깎아 달라고요. 게다가 환자의 보호자는 옆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습니까. 간호사는 '이런 건 보호자 분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라며 타박을 주자 환자는 막무가내로 깎아달라며 갈과 사과를 내밀었습니다. 새벽이기도 하고 다른 환자들이 깽까봐 간호사는 사과를 대충대충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깎는데 환자가 하는 말이 '좀 예쁘게 깎아주세요.'라는 겁니다. 간호사는 순간 피곤하고 힘든 이 새벽에 굳이 나를 불러 사과를 깎아달라는 환자가 너무나 야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대충 사과를 자르고 병실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사과 깎아 달라던 환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몇일 뒤였습니다. 그 환자의 보호자가 간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간호사님, 새벽에 사과를 깎아주신 것 남편이 죽어가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사실 그날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고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깎아주고 싶었다 합니다. "여기 결혼기념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주었지요.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깎을 수가 없어서 간호사님께 부탁하는 소리를 다 듣고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님 그날 새벽에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전한 겁니다. 간호사는 그날 불친절하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간호사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어땠을까요? 그 새벽에 바쁘고 피곤한 간호사를 호출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부탁을 했을 그 환자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릴 줄 알았다면요. 그래도 이 간호사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 너무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늘 후회하게 됩니다. 불선업을 짓고 후회하고 그러며 살지요. 하지만 염송을 통해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벽통사 새해 수행 목표로 삼삼평등을 알아차림하기를 한해 수행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 합니다. 보살님들이 내 안의 불성을 찾고 불법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합니다.



오미순 교도

6개월을 더 살든 6년을 더 살든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

운동을 좋아하여 수영을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영을 하고 샤워를 하는데 사타구니에 무언가 몽글한 몽우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저에게 암 4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입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현실감이 사라진다고 하지요. 처음엔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현실과악이 되기도 전에 치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다가, 차도가 없어 병원을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마땅히 옮길 큰 병원이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믿을 것은 오직 부처님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당시 벽통사 스승님

께서 세브란스 병원 수간호사님을 소개시켜주어 그분을 통해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옮긴 병원의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치료 효과가 미비할 경우, 저에게는 6개월의 시간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싶고, 제 인생을 통째로 되돌아보며 슬퍼하기도 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원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제를 건디는 그 순간들이 정말로 지옥이구나 싶었습니다. 치료는 너무 괴롭고, 저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저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제가 참 몹쓸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나쁜 생각이었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싶은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나날 속에서도 놓을 수 없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의 항암치료와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날들일 것입니다. 항암제가 들어가는 순간엔 입속으로 항암염송을 하였습니다. 항암제가 들어가지 않는 순간에도 부처님께 기원하였습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제게 이 삶을 더 허락해주신다면 정말로 복있는 삶을 살며 보살도를 실천하겠다 스스로에게, 부처님에게 약속하고 맹세했습니다. 치료는 계속 이어졌지만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는 것 역시 나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

니다. 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오직 나만 생각하며 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깨닫자 스스로에게 너무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6개월을 더 살든 6년을 더 살든,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이라 믿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음먹었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힘들고 고됐지만 옴마니반메흠의 진언과 함께 견디어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도, 치료가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쩐지 병이 나를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어쩐지 부처님이 나를 계속해서 건강하도록 이끄는 느낌이 들었고, 6개월 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말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항암제가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진언염송과 함께하니 몸이 나아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2005년도에 5년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으

로 전이가 되지 않아 완치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기쁘다기 보다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더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공덕을 쌓을 시간을 더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덕을 쌓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와 재활치료를 받으며 수영도하고, 산행도하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암 치료가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고 보니 제 주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에게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절에 가서 2,000배를 올리고, 대중공양을 하고, 방생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병이 나은 것이 나의 공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같이 절에 다니는 보살님은 저를 위한 꿈을 대신 꾸어 주기도 했습니다. 꿈에 벽통사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저를 위한 행상을 꾸며 천도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꿈에서 제가 죽은지 알고 통곡을 하며 우셨답니다. 꿈은 반대라 하지요. 저를 위해 얼마나 걱정을 해주었으면 꿈을 다 꾸어 주었습니까. 이처럼 제가 나온 것은 부처님과 제 주위 사람들의 공덕 덕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더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처님에게 약속하였듯 그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이 인생이 너무도 즐거울 뿐입니다. (리라이팅=박설리)



조령이 교도

차별희사하고 불공하면 만사형통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 각자님이 경주에 위치한 금속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삐끗하더니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리 통증은 심각해졌습니다. 용하다는 병원이며 이름 있는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신경성일 뿐이다."라는 말만 했죠.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이건 곳을 해야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곳도 해보았습니다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이웃이 권유를 했습니다. "저기 절에 가니까, 운수가 트인다고들 하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절이요?" 저는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었고,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을 따라

산속 절에 놀러갔을 때도 울긋불긋한 탕화와 부리부리한 그림들이 참 무서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절은 별로 안 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절은 좀 다르더라고요. 다리가 그렇게 아프다면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절에 가면 다리가 나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다리가 나를 것 같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안강 건화사입니다. 절이라고 해서 가진 것지만 불상도 하나 없고 이상하였습니다. "여기가 절이예요?" "네, 여기가 바로 그 절이예요." 그렇게 절을 둘러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서는 일단 조상불공을 하면서 어디서나 지나 깨나 옴마니반메흠을 습

관적으로 외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다리가 아파서 여기에 왔어요." "다리요?" 그러면 다리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사를 하고, 어쨌든 옴마니반메흠을 언제나 외우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차별희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어마 무시한 괴물이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 괴물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머리와 다리에 붉은 색의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부자리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절에 가지마자 스승님을 불렀고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다리가 낫는 꿈 같아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절에 오는 걸음이 평소보다 한결 더 가벼웠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차별희사를 좀 더 하면서 열심히 불공을 하였습니다. 절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고, 스승님의 설법도 귀에 속속 들어왔습니다. 모든 말들이 다 나의 상황과 나에 대한 말처럼 여

겨지고 마음도 무척 편안해졌습니다. 어느새 다리의 통증도 말끔하게 사라져 바깥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것을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다른 절에 다니고 있었는데 꼭 이 건화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희사를 조금 하였습니까. 부디 저의 진심이 시어머니에게 닿아서 하나의 종교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다니는 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걱정이 무색하게 시어머니는 아주 흔쾌히 가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건화사에 다녔습니다. 대중불공 시간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밖의 모든 불공에 있어 시간과 일자를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해 불공하는 날에 시어머니

가 병환길을 서둘러 건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통통 부어올랐음에도 절에 빠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은 다음 봉대를 칭칭 감은 상태로 다시 절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절룩거리며 새해불공을 다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욕심이 많았습니다. 딸이 돌 있었음에도 막내로 아들을 낳으라고 하였습니다. 정작 우리 각자님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다 잘 기를 수 없다면 셋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손자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절을 다니면서 인연이 있다면 아들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며 차별희사와 불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보다 더 흡족해하시며 이게 다 부처님 공덕이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아들 생각은 없어 보이던 각자님도 정말 좋아하였습니다.

지금은 저보다도 우리 각자님이 더 열심히 벽통사 절에 다닙니다. 시동생, 동서까지도 총지종을 믿고 있으니 우리 온 가족 모두가 평안하답니다.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 만사가 술술 풀리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도 차별희사를 하고 나면 간지러웠던 곳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기억이 퍼뜩 나곤 합니다. 차별희사는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차별희사를 통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리라이팅=황보정미)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밀교문화와 생활』(24)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 삼매야와 밀교수행

## 삼매야(三昧耶)

밀교에서 삼매야(三昧耶)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밀교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밀교는 즉신성불을 구경으로 하며, 즉신성불을 위한 교리와 수행법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그 중심에 삼매야의 교리체계가 시설(施說)되고 있다. 불퇴전의 믿음과 수행, 깨달음이 부서지지 않는 금강(金剛)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삼매야로 더 많이 기술된다. 또한 삼매야는 수행법, 작법뿐만 아니라 계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밀교의 계율을 특히 삼매야계(三昧耶戒)라고 부른다. 또 삼매야계는 보리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리심계(菩提心戒)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삼매야는 무슨 뜻인가? 불교대사전에서는 '삼매야란 부처님이 수행하던 때의 서원(誓願)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밀교에서는 여기에다 평등(平等), 경각(警覺), 제장(除障)의 뜻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삼매

야는 불보살의 서원(誓願)을 가리킨다. 그래서 삼매야를 본서(本誓)·본원(本願)이라고도 한다.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서원이란 뜻으로서, 불보살의 총원(總願)이자 통원(通願)이다. 일체 서원을 모두 합친 서원이므로 총원(總願)이요, 모두에게 통하는 서원이므로 통원(通願)인 것이다. 그 본서(本誓)는 바로 자리행의 즉신성불과 중생구제의 이타행이다.

이러한 삼매야를 줄여서 삼매(三昧)라고 부르는데, 이는 삼마지(三摩地)를 뜻하는 삼매(三昧)와는 다르다. 삼마지의 삼매는 마음이 통일되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선정(禪定)과 같은 말이다.

밀교에서 삼매야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네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데, 용어만 다를 뿐 결국 수행과 깨달음에 이르는 줄여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삼매야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 삼매야(三昧耶)는 본서(本誓)·평등(平等)·경각(警覺)·제장(除障)의 뜻

먼저 본서(本誓)의 뜻이다. 본서(本誓)는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무상보리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대서원이니, 그래서 밀교에서는 보리에 이르기 위하여 다양한 방편들이 제시되고 있다. 삼밀수행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자관(字觀)이 설해지고 작법(作法)과 실천법 등이 설해진다. 그 실천교설 가운데 하나로서 학처와 계율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대일경』의 경우 『지명금계품』이나 『수방편학처품』, 『진언행학처품』, 『증익수호정행품』 등에서 진언행자가 지나야 할 수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보리를 증득하기 위한 수행방편으로서 모두가 보리를 증득하기 위한 삼매야의 가르침인 것이다. 본서(本誓)의 의미를 지닌 삼매야는 구체적으로 소지물(所持物)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를 삼매야형(三昧耶形)이라 한다. 불보살이 지니고 있는 칼·탑·구슬·연꽃·창·염주·화 등 삼매야형이다. 이 삼매야형으로 이루어진 만다라를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라고 부른다. 금강계만다라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두 번째로 삼매야는 평등(平等)의 뜻이다. 『삼삼매야품』에서 삼매야는 삼평등(三平等)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엇이 삼평등인가 하면, 심(心)과 지(智)와 비(悲)가 평등하여 하나요, 불·법·승이 셋이면서도 하나로서 평등하며, 법신·보신·응신도 셋이지만 본래가 평등일여(平等一如)한 것이라고 하였다. 『화엄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도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삼삼매야이다.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고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삼매야는 일여일체(一如一體)로서 하나라는 의미이다. 화엄교학의 밀교적 계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삼매야는 경각(警覺)의 뜻이다. 경각이란 퇴전하는 중생에게 겁을 주거나 놀라게 해서 보리심을 깨닫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계율을 피우거나 나태해진 진언행자를 각성케 하여 정진토록 한다는 말이다. 그 경각은 보리를 증득하기 위한 다그침으로서 여래의 본원(本願)을 기억케 한다. 그래서 경각은 보리의 증득이라는 본서

(本誓)와 다르지 않으며, 증득이 곧 불(佛)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평등과 연결된다. 이 때문에 밀교에는 무명중생을 경각으로써 다스리는 분노존(忿怒尊)인 명왕(明王)이 등장하고 비로자나불의 사중법신 가운데 하나인 등류법신(等流法身)이 설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 삼매야는 제장(除障)을 의미한다. 장애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중생들의 무명을 제거하여 여래의 법신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다. 제장(除障)의 삼매야는 밀교에서 호마법(護摩法)으로 이루어진다. 제장의 작법으로 식재·항복법이 전개되는 것이다.

### 삼매야(三昧耶)는 삼밀수행과 작법, 계율을 모두 포함, 진언행자 자신이 삼매야(三昧耶)

이와 같이 삼매야는 밀교의 수행과 교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밀수행과 작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교는 삼매야의 법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율도 삼매야의 법에 포함된다. 그 계가 삼매야계(三昧耶戒)다. 삼매야계(三昧耶戒)는 밀교에만 있는 계다. 이 계에는 3종의 보리심이 언급된다. 보리심이 계체(戒體)이면서 계목(戒目)의 주요 내용이 된다. 모두 보리심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보리심이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면서 밀교에서는 이미 깨달음을 이룬 것까지도 포함한다. 3종의 보리심을 지니는 것이 삼매야계다. 삼보리심(三菩提心)은 행원보리심, 승의보리심, 삼마지보리심이다.

밀교의 계율뿐만 아니라 삼밀수행, 다양한 작법 등은 모두 삼매야로 연결된다. 보리를 증득하기 위한 방편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행하는 진언행자 자신도 곧 삼매야이며, 자신의 몸이 삼매야이며, 마음이 삼매야이며, 자신의 삼밀수행과 지계행(持戒行)도 모두 삼매야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곧 부처이며 삼매야 그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 삼매야를 이루소서. '나도 사만다 발타 남 아삼미 달이삼미 삼매야 사바하'.

##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 구경차제 중 금강염송차제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밀교도량의 화려한 채색과 선화의 무채색을 비교하면 밀교와 선불교 양 전통의 이질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외면적 인상과 달리 밀교와 선의 거리는 결코 멀지 않다. 선불교는 달마대사를 초조(初祖)로 삼으며 난해한 문헌주의와 종파불교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을 보인다. 인도 날란다사 불교대학에서 5, 6세기 전후 일어났던 변화도 방대한 불교문헌과 교학을 간략한 과목과 교육체제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인도, 동아시아에 양 지역에서 불교교단의 실용주의적 경향이 동일하게 일어났

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며 그 중심에는 밀교가 있다. 『화엄경』의 출현은 초기불교 테라바다에서 보이는 생사해탈의 소극적 열반을 연기법계를 장엄하는 우주적 생명의 깨달음으로 전환하였다. 『화엄경』에서 제기된 비로자나여래의 일체지지와 신변은 향후 대승불교사의 교리와 수행이념 대부분을 결정지었다. 이 가운데 비로자나여래의 신변은 불신(佛身)에 대해 법신·보신·화신으로 이루어진 3신의 조직화로 이어졌으며, 이를 계기한 것은 유식학파이다. 석존의 수식관과 4념처관은

육체로부터 정신의 경계에 접근하는 초기불교의 근본수행이었다. 천삼백여 년이 넘게 지난 후 『비밀집회판트라』 유파 가운데 가나빠다류를 주도한 아사리는 석존의 12지연기법에 주목했다. 그는 유행의 본성으로서 광명(vidya)과 윤회의 소작으로서 무명으로부터 유(bhava)의 정신적 경계, 생·노사의 육체적 의 세 단계를 구별하고 이를 3신의 법신과 보신, 화신에 대응하였다. 후기밀교의 수행이 석존의 교설을 계승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최근에 출판되는 후기밀교 문헌들은 서구의 밀교연구가 외면적 현상에 내재된 초기불교의 흔적을 발견하는데 익숙하다. 가나빠다의 따라가에 대한 연구는 나가르주나류의 구경차제의 토대가 되었다. 나가르주나류는 『중론』의 저자와는 다른 분으로 부자(父子)가 모두 후기밀교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일경』과 더불어 인도의 후기밀교의 초기 활동은 제가자들의 연구가 두드러진다. 티벳불교 님파빠에 최근까지 그 전승이 알려진 '진언자(ngagpa pa)'나 또는 네 팔에도 존속해 온 밀교수행 집단 모두 제가자가 그 중심이 되었다. 인도불교의 승가가 가질 지 모를 경직성을 반성하고 불교교단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었던 것은 보살불교였으며, 후기밀교의 경우 사하자아나도 그런 류였다.

구경차제는 금강염송차제(金剛念誦次第)를 최초로 심청정차제(心淸淨次第)·환신차제(幻身次第)·광명차제

(光明次第)·쌍입차제(雙入次第)의 다섯 차례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나가르주나류의 구경차제 성취법은 『오차제(pañcakrama)』라는 서명이 부여되어 있다. 『지혜금강집판트라』에는 오차제에 대해, "식(識)의 운반체는 풍(風)이다. 풍으로부터 불이 있으며, 불로부터 물이 있으며, 물로부터 흙이 있다. 이들로부 터 오온과 육처와 오경이 생긴다. 이들 모두는 식이 풍과 결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무형의 정신계에서 물질적 소재와 물리법칙이 존재하는 현상계에 진입하는 것은 정신의 응집력이다. 무명의 중생은 집착에 의해 응집력을 야기하지만, 붓다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타심에 의해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전생한다. 다시 『오차제』에는, "풍(風)의 진실차제로써 진언의 진실에 바르게 들고, 진언의 관상을 원만케하는 금강염송을 수학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진언은 불보살의 가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언

을 통해 소리가 이끄는 불성으로서의 본질과 생명력의 근원에 접근하는 것이다. 『금강만판트라』에는, "일체의 몸이 풍이 존재한다. 이것은 비로자나여래의 본성으로서 무명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명료한 풍의 진실은 5지(五智)의 자성이다. 이 유가는 범인의 경계가 아니며 논리나 따지는 인명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학위를 받은 직후 모대학에 밀교수업 차 내려갔을 때 선을 전공했던 학과장 스님이 "나는 밀교가 싫다"고 장난삼아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밀교는 공부할수록 어렵지만 다른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 불법을 만난다면 여전히 밀교를 공부하고 싶다. 밀교의 근거는 날란다사에서 찾아야 한다. 과거에 그랬듯이 방대한 불교문헌과 교리를 정비하고 요의를 추린 변화는 머지않아 현대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 벽룡사 교도

# 노루페인트 대리점 삼화페인트 전문취급

대신상사 (도장공사 단종면허 업체)

- |       |           |             |
|-------|-----------|-------------|
| 취급 품목 | ▶방수공사전문업체 | ▶각종페인트 도·소매 |
|       | ▶인테리어 집칠  | ▶기와칠 벽돌방수   |
|       | ▶공사청부     |             |









**절기이야기**

**우수**

정각사 남해 정사



우수(雨)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어린 새싹이 하나둘 움 트기 시작한다. 우수(雨)는 태양이 황경 330도의 위치에 올 때이며, 입춘 후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 또는 20일 경에 해당한다. 우수가 되면 날씨가 많이 풀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우수'라는 말을 한자를 보면 비(雨)와 물(水)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추운 겨울 꿈 꿔 얼었던 얼음이 녹아내려 물이 되고,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말로 이제 곧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됨을 뜻한다. 입춘은 이제 막 봄이 들기 시작한 느낌이라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이지만, 우수(雨)는 꽃샘추위마저 잦아들기 시작하고, 완연한 봄이 찾아옴을 알리는 시기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우수 입기일 이후 15일을 세분하여 그 특징을 나타냈다. 처음 5일간은 수탉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고, 다음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며, 마지막 5일간은 초목에 싹이 튼다고 했다. 우수 무렵이면 겨우내 얼었던 강이 풀림과 동시에 수탉이 물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먹이를 마련한다. 또한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기러기는 따뜻한 봄기운을 피해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간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면 마지막 말후 5일간은 사방의 풀과 나무에서 봄을 상징하는 새싹이 돋아나게 된다. 우수에는 따뜻한 날씨를 비유한 여러 속담 있다. 먼저 '우수 뒤의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기상 양력 2월 19일경에 해당하는 우수에는 따뜻한 봄기

운이 돌아 겨우내 잠들어있던 초목이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움 트는 시기이다. 그런 따뜻한 '우수'가 지난 후의 얼음은 이미 녹아 없어졌거나, 슬슬 녹아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수 뒤의 얼음같이'는 우수가 지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음을 알 수 있는 속담이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소중한 존재다. 물이 없다면 작물이 클 수 없고, 물이 없다면 대지도 사람도 말라간다. 우수가 다가오면 옛 농민들은 논과 밭두렁을 태웠다. 본격적인 농사준비를 시작하는 것인데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였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쥐불놀이이다. 쥐불놀이는 한해의 시작을 농산물의 성장과 재산증식을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즘은 농약의 사용과 화재 예방으로 논밭을 태우는 옛 풍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도 지역 곳곳에서는 액운을 막으려는 작은 행사가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수(雨)는 봄이 완연해지는 시기이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겨우내 얼어있던 천지만물을 녹이며, 겨울 추위에 얼어붙은 중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기를 바래 본다.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게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경청의 힘**

신정택 교수(동의대학교)

**우리가 때로 꽃과 나무와도 소통이 되는데, 사람끼리 웬지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식물하고도 소통이 되는데 사람끼리 소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저마다 입장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내 위치, 내 입장, 내 취향, 내 가치관에서 내 식대로 하려고 하니깐 소통이 어려운 것입니다. 소통은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

**미술관에서의 일이다. 오후에 인근 미술관에 들러 미술품을 감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교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초등학생 눈높이만큼 몸을 낮추어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자신의 힘든 것보다 아이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한 행동이다.**

요즘, TV를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이며, 말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면 닮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화법학원도 있고 잘말하는 기술에 대한 베스트셀러 책도 많이 출간되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홍보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요즘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이고, 대화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다. 경청(Listening)은 듣기(Hearing)의 반대말이며, 경청은 청각을 통해 전달된 소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경청을 한자로 풀어보면, 傾(기울어질 경), 聽(들음 청)으로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내면에 깔려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듣는 것을 말한다.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기초가 된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입을 하면서 듣고, 수용적으로 들어야 한다. 특히,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경청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ENCOURAGES' 기법이 있으며,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면 경청과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NCOURAGES 기법**

- E-eye:** 적당한 정도의 눈 마주치기를 유지한다.
- N-nod:** 고개 끄덕임을 적절히 한다.
- C-cultural:**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한다.O-open: 타인을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
- U-umhmm:** "음" 등의 인정하는 말을 적절히 사용한다.
- R-relax:**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세를 취한다.
- A-avoid:**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행동은 피한다.
- G-grammatical:** 내담자의 이야기 스타일에 맞추어서 반응한다.
- E-ear:** 세 번째 귀로 듣는다. 음성적 메시지와 비음성적 메시지를 모두 주목한다.
- S-space:** 적절한 공간을 사용한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사람과 갈등/싸움이 있을 때, 경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갈등/싸움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워 상대방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싸움의 상황에서는 감정에 휘말려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으며, 나중에 후회될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을 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를 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최고의 대화 방법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우리의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인 것은 적게 이야기하고 많이 들으라는 의미일지 모른다. 가족, 동료, 친구들과 갈등이 있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시작할 것이다.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 ②②**

**梅蘭菊竹**

국화 따라 그리기 Ⅲ



덕광 정사 (실지사 주교)  
각종 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맛찬들 3.5 노원점**  
**왕소금구이**



예약전화 **02-938-7008**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68-9

영업시간 11:00 - 01:00

아름다운 삶

# 배고픈 시절 끼니 도와준 지인에 1000만원 건넨 남성



배고픈 시절 따뜻한 밥 한끼를 지어준 지인에게 선뜻 1000만원을 내어준 남성의 사연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머니 암 수술비로 곤경에 처한 지인에게 조건 없이 1000만원을 보내준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 속 글쓴이는 과거 어려웠던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생의 도움을 받았다.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날이 대부분이었던 그는 동생의 모친이 운영하는 작

은 백반집에서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염치 불구, 일주일에 두세번을 찾아갔음에도 동생의 모친은 돈 한번 받지 않고 아들인 마냥 그를 대해줬다. 세월이 흐른 후 글쓴이는 동생에게 "어머니가 대장암 3기인데 보험든 것도 없고, 돈을 다 끌어 모아도 700만원이 부족하다. 혹시 빌려줄 수 있는지..."라는 어려운 부탁을 받았다. 그는 과거 자신이 굶고 다닌 시절 받은 밥 한끼의 고마움을 떠올렸다. 아버지 빚 갚느라 돈 한번

제대로 못 모으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동생도 생각하며 그는 주저 없이 1000만원을 송금했다.

돈을 부치고 글쓴이는 필요한건 700만 원인데 왜 더주냐는 물음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수술 잘 마치고 몸조리 하시는데 돈 더 필요할거다. 내가 굶고 다닐 때 어머니가 지어준 밥값이니 갚을 필요도 없다. 더 필요하면 말하라"라고 답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단하다. 아무리 친해도 큰돈이 쉽지 않았을텐데" "좋은 일은 꼭 다시 돌아올거다. 멋지시다." "돈 버는 이유를 알려주신다. 많이 배운다." "요즘 같은 때 너무 감동이다." 등 찬사를 보냈다.

글쓴이도 "어머니 수술 잘 마칠 겁니다. 동생과 어머니가 배고플 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약소하다. 태어나 처음으로 돈을 가지듯 쓴 것 같아 행복하다."라며 따뜻함을 더했다.

##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 12월 28일 부산 정각사에서 정각원스승님 기일을 맞아 부산 경남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이 참석하여 합동 기재일 불공을 올렸다.

(통신원 = 한미옥)

▶ 부산경남 만다라합창단 박윤규 지휘자 선생님이 클래식, 일반가요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1월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30분간. 열린 FM WBS부산원음방송.



▶ 마니합창단 임원 출범 1월 15일 서울경인교구 마니 합창단 임원들이 새로이 결성되어 출범식을 가졌다. 단장 최해선, 총무 김은미, 의상 양유덕, 악보 김현숙 새 임원들의 헌신 봉사로 마니 합창단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임기 49.1.1.부터 2년.

(통신원 = 백귀임)



▶ 불교총지중 찬불가 3집 불교총지중 찬불가 3집을 1월 16일 전국에 배포 부산경남 만다라합창단이 녹음하였고 코드악보집과 함께 비매품으로 배포되었다.



### 어울림소식

"극락 왕생을 기원합니다."  
1월 27일, 총지사, 조숙자 보살 열반(종조님 자부)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원합니다."  
2월 1일, 종립 동해중학교, 제49회 졸업식, 해오름관 강당.

### 총지스케치

김홍균 작가

황금돼지해  
바라는 대로 다 돼지  
모든 소원 이루어지이다  
2019

## Q&A ?!

### 문고 답하기

Q : 함께 같은 길을 가도 왜 같은 것을 보지 못하죠? 나는 보았는데 왜 보지 못했다고 하죠. 답답합니다.

A : 친구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 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지나가도 두 사람이 본 것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무엇을 보았을까요? 두 사람은 각자의 관심 부분을 보았을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이는 서점을 보고, 옷을 좋아하는 이는 옷가게를 보고, 선물을 사야 한다면 선물 가게를 보았을 겁니다. 보았다기보다는 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보였다고 말하지만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이죠. 내가 본 것을 보여줬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보게 된 것은 바로 관심이 온통 책에 있어 서점이 보인것으로 관심 부분이죠. 이를 또 탐욕심이라 말합니다. 내 눈에다 서점을 보게(결박) 시킨 것은 탐욕의 작용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인 대상(색)을 볼 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중간에 탐욕심이 작용하여 서점이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아니란 거죠. 주의를 집중할 때 비로소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자아(나)와 보이는 대상 사이에 관심이나 욕구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에서는 안과 색이 욕탐에 묶여 있다고 한 것입니다. 관광지에 가면 같은 것을 보고도 구경 잘했다 하는 사람과 머 볼 것도 없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죠. 바로 내 관심사 중심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관심사인 욕탐에 묶여 있는 눈(안)과 눈으로 보이는 대상인 색은 자아와 대상, 주관과 객관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은 내부 자아이고 보이는 색은 외부 대상이 됩니다. 중생들의 안과 밖은 항상 욕탐에 의해 묶여 있는 관계로 홀로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같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하다. 말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받아들여 인정하세요. 아 - 그렇구나. 너는 그리 보였구나. 하고요. 내 마음속 자비심을 일깨우고 배부시면 옆에 있는 답답한 사람이 달라질 것입니다. (법일 정사)

##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1 최저임금의 변화**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나 상승한 시급 8,350원이다.
- 2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3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문화누리카드) 2018년에는 1인당 연 7만원이었던 카드 한도액이 2019년에는 연 8만원으로 상승한다. 신청기간 2019년 2월 1일 ~ 11월 30일까지 이용기간 발급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 4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중소,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준다.
- 5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 1~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의 40% 2019년(예정) : 1~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급여 상한액 : 월 100만 원 -> 120만 원 / 급여 하한액 : 월 50만 원 -> 70만 원

불교총지중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총지중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